

보 도 자 료

작성기관	순천상공회의소
담당자	서호기 사무국장 (☎ 010 - 3640 - 1292)
보도일시	2021년 12월 27일 석간 이후
제 목	순천상의, “올해 4/4분기 실적 크게 개선, 새해 전망은 불투명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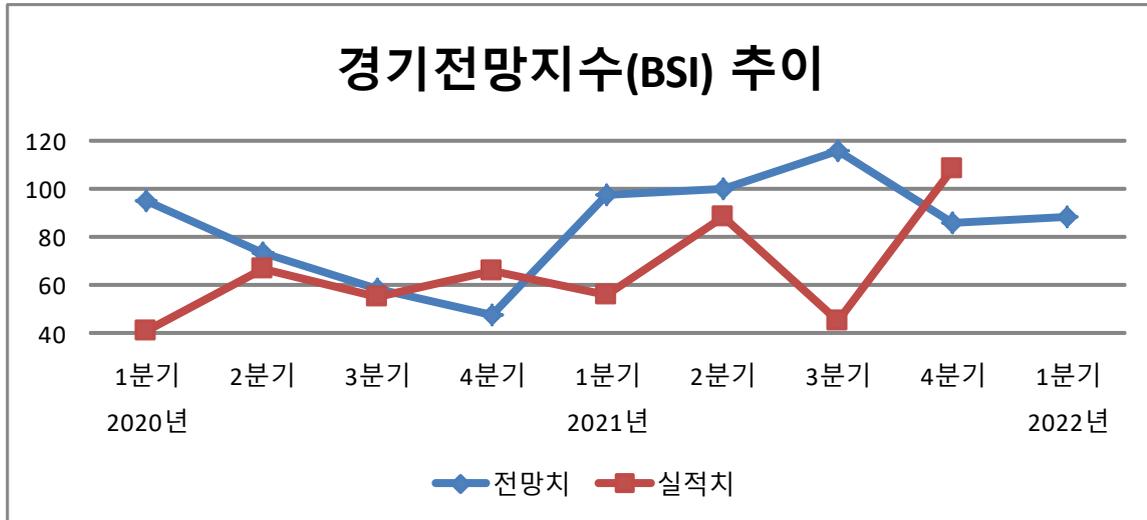


< 사진 : 순천상공회의소 >

순천지역 제조업체의 올해 4/4분기 실적이 지난 3/4분기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새해 경기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, 국제 금리 인상 및 원자재 공급 차질 우려 등 대내·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어 회복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.

순천상공회의소(회장 : 이흥우)는 최근 관내(순천, 구례, 보성)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새해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, BSI 지수가 88p로 기준치인 '100'을 밑돌고 있어 우리 지역 제조업체들이 새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듯 보인다.

다만, 지난 분기 매출액과 설비투자 등의 실적치는 3/4분기와 비교하여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.



< 자료 : 순천상공회의소 >

새해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한 업체는 전체의 23% 정도에 그쳤으며, 이 중 약 83%는 공격적인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. 새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업체 중 신사업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“기존사업의 확장 수준의 투자(50%)”가 가장 많았으며 “신산업·신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(약 33%)”, “특별한 신규투자 계획 없음(약 17%)”이 뒤를 이었다.

새해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이유로 50%의 업체는 “시장 불확실성이 커 사업목표·전략 수립이 어렵기 때문”이라고 답하였으며 25%의 업체는 “현재 위기 대응에 집중”을 이유로 꼽았다.

대선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,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분야(아젠다)로 가장 높은 응답률(57.9%)을 보인 것은 “경제 활성화”이며, 18.4%는 “부동산 안정”이라고 답했다.

순천상의 이흥우 회장은 “기계 부품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·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,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강화, 주요국 긴축 기조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지역 제조업체의 새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지속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, 원자재 공급 차질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인플레이션 관리 등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”라고 덧붙였다.